

#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에 대한 考察

尹나다·林樂哲\*\*·金容辰\*

## 對於『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의 研究

尹나다·林樂哲·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對於『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 結合各醫家的注解, 進行綜合研究的結果, 獲得了以下的結論.

1. 根據脈象, 驚悸可辨證爲驚證和悸證, 其脈診部位, 根據不同的注家, 一部分認爲是寸口脈全體, 另一部分認爲只是寸部位而有了見解差異.
2. 關於衄血, 則有根據脈象所分的吉凶和根據季節的不同所作的分類, 這是本篇所特有的一面. 在以汗與衄血的關係說明禁忌方面, 與傷寒論等書籍保持一致.
3. 本篇論述了吐血的誘因及隨脈象所歷的病程, 尤其在論述吐血與肺之間的相關性時, 有過注家們的論爭.
4. 關於下血, 提出了治方, 並說明了區別近血與遠血的大綱.
5. 本篇中, 大體上把血證認定爲亡血, 並擴展了衄血與汗的關係, 論述了各種血證與汗的關係以及按照脈象所作的辨證.
6. 本篇仔細論述了胸滿的證狀, 並把瘀血看作其原因, 特別是在整體脈絡中, 提示了關於瘀血病證的參考點.
7. 關於火邪, 歷代注家們認爲這大概是誤用各種熱性刺戟治療所致, 還根據傷寒論, 把火邪看作驚悸原因之一. 治療驚悸的處方, 使用了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 並且在治療心下悸方面, 提到了半夏麻黃丸.
8. 血證的治療方面, 當吐血不止時適用柏葉湯; 當吐·衄血屬於心火亢盛, 迫血妄行時, 則適用瀉心湯類; 當下血爲先便後血的遠血時 適用黃土湯, 當下血爲先血後便的近血時, 則適用赤小豆當歸散.

### I. 序 論

東漢末 建安年間に 張機는 그 당시에 傷寒으로 故郷사람들이 사망하자 이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傷寒과 雜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傷寒雜病論』 16卷을 저술하였다. 傷寒部分은 魏晉시대에 王叔和에 의해 정리된 뒤에 3세기말부터 세상에 전해

져 왔으나, 雜病部分은 제대로 전해 내려오지 못하다가 1065년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 王洙가 발견한 『金匱玉函要略方』을 編輯·校定하여 그 중의 傷寒部分은 빼버리고 雜病에서부터 飲食禁忌에 이르기까지 25편을 만들어 중복된 것은 빼버리고 모두 262方으로 上中下 三卷을 구성하고 『金匱要略方論』이라고 하였다<sup>1)</sup>. 『金匱要略』은 한대 이전의 臨床을 충분히 포괄하였고 辨證施治와 方藥配伍의 기본원칙을 제공하였고, 또 諸家の 處方이 여러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교신저자 : 김용진 · E-mail : king@dju.ac.kr

· 채택일 : 2004년 5월 26일.

1)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164.

갈래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編의 뒤에 붙여서 그 治法을 넓혀 후세 臨床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였다. 『金匱要略』의 또 하나의 특징은 疾病爲主로 편목을 만들어다는 점이다. 즉 二編에서 十七編까지는 內科疾患을, 十八編은 外科疾患을, 十九編은 陰狐疝을, 二十에서 二十二編은 婦人科疾患을 나머지는 雜療方救急 食物禁忌 등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驚悸는 內經에서 臨床의 證候나 脈象에 대한 설명은 약간 거론되었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膈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盛喘數絕者 則在在中 結而橫有積矣 絕不至曰死 乳之下其動應衣 宗氣泄也”라 했다. 『素問·痺論』에서 “心痺者 脈不通 煩則心下鼓”라 했다. 臨床的 症狀에서 虛里의 跳動이 外部로 衣服에 까지 感應하면 心痺症狀때 “心下鼓”와 같이 宗氣가 外泄하는 狀態에 屬한다. 『靈樞·根結』에서 “持其脈口, 數其至也. 五十動而不一代者, 五藏皆受氣; 四十動一代者, 一藏無氣; 三十動一代者, 二藏無氣; 二十動一代者, 三藏無氣; 十動一代者, 四藏無氣; 不滿十動一代者, 五藏無氣,”라 했으며 또한 “予之短期者, 乍數乍疏也”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불규칙하다는 기록들은 驚悸怔忡의 脈象변화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그 중에 規律이 불규칙한 것은 대부분 驚悸怔忡의 범위에 屬한다<sup>2)</sup>. 그러나 이는 아직 구체적인 病名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에서는 정식으로 驚悸에 대한 病名이 나타나며, 그 脈象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각종 病理的 出血證狀은 血證이라 칭한다<sup>3)</sup>.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太陽司天 寒淫所勝 則寒氣反至 水且冰 血變於中 發爲癰瘍 民病厥心痛 嘔血 血泄 衄衄” 『素問·舉痛論』에서 “怒則氣逆 甚則嘔血” 『靈樞·百病始生』 “卒然多食飲, 則腸滿, 起居不節, 用力過度, 則絡脈傷, 陽絡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 陰絡傷則血內溢, 血內溢則後血” 『素問·大奇論』에서 “脈至而搏, 血衄 身熱者死” 『靈樞·玉版』

에서 “衄而不止, 脈大, 逆也”라 하였다.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에서는 吐血, 衄血, 便血의 辨證論治와 百葉湯, 瀉心湯類의 方劑가 등장하며, 血證의 禁忌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비록 原文에서 驚悸와 血證에 대해 밝혔으나, 그 문장이 簡略하고, 각 注家別로 解釋과 觀點의 차이가 있어, 筆者는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에 대하여 歷代 注家들의 注를 참고하여 辨證論治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본 論文은 『金匱要略』의 原文 順序에 따라 篇을 나누었으며, 校勘·字句解·考察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一中社에서 1992年度에 影印出版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勘과 字句解는 陳紀藩이 主編한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 2002.)을 위주로 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理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郭靄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匱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을 주로 參考로 하였다.

마. 本文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다.

바. 본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에는 ‘ ’로, 脚注에는 1), 2), 3)으로, 校勘에는 ①, ②, ③으로, 字句解에는 ( ) 등의 一連番號로 標示하였다.

## III. 本 論

1. 寸口脈動而弱<sup>①</sup>하니 動卽爲驚이오 弱則爲悸<sup>②</sup>라

해석) 寸口脈이 動하고 弱하니, 動하면 驚이고, 弱하면 悸가 된다.

2) 全國韓醫科大學 心悸內科學教室, 東醫心悸內科學, 서울, 서원당, 1995, p 246.

3) 張伯興 主編 中醫內科學, 북경 1988, p161.

## [校勘]

① 寸口脈動而弱: ‘寸口脈’에 대해 두가지 인식이 있다. 李炆·葉霖·陳念祖는 모두 寸口脈三部를 통틀어서 언급하였으나 曹家達은 寸口部位중에서 手太陰의 第一部이 당연하다고하고,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니라하였다. 이에 대해 陸淵雷는 寸口는 寸關尺三部를 포괄해서 이르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서, 諸家들의 상이점이 있었다.

② 動卽爲驚, 弱則爲悸: 驚은 外部로부터 發生한 것이고, 悸는 內部로부터 發生한 것이다. 李炆은 “驚則氣亂, 故脈動而不寧” 또한 “驚因中虛, 故脈弱而無力.”이라하여 氣亂과 脈動을 中虛와 脈弱을 연결하였다.

## [考察]

本條는 脈象에 따른 驚과 悸의 病因病機에 대해 논하고 있다. 寸口脈을 진찰할 때 豆粒이 轉動하는 것 같은 形狀의 脈을 動脈이라하고, 이는 대개 驚에 屬하며 外界의 刺激에 尤대하는데, 예를 들어 突受驚嚇하여, 使心無所倚하고, 神無所歸하여, 血氣逆亂하면, 出現精神不寧하고 臥起不安하고 脈이 動搖不寧하게 되니 ‘動卽爲驚’이라하였고, 脈象이 細軟無力하고 重按하여 弱脈을 보는 것은 悸에 屬하며, 氣血不足하여 心脈이 充養되지 못하는 데서 尤대하여, 脈象軟弱無力하게 되니 ‘弱則爲悸’라 한다. 만약 寸口脈이 動과 弱이 같이 보이면 心の 氣血內虛이며, 또한 驚恐에 觸感되어 症狀이 精神惶恐, 坐臥不安, 心中悸動不寧하는 것을 驚悸라 한다.

本條文에 대한 理解와 解說은 각 註家마다 다르니, 陸淵雷의 경우는 驚悸가 血證之前에 있는 것을 들어서 亡血할 경우에 驚·悸·怔忡 등이 이미 있는 것이니, 動脈·弱脈과는 無關하다하였으니 參考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趙良仁은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不役形, 不勞心, 則精氣全而神明安其宅; 苟有所傷, 則氣虛而脈動, 動則心悸神惕. 精虛則脈弱, 弱則驚悸恐悸. 蓋驚自外物觸入而動屬陽, 陽就則脈動; 悸自內恐而生屬陰, 陰耗則脈弱. 是病宜和平之劑, 補其精所, 鎮其神靈, 尤當處之以靜也.”(『金匱玉函經二注』)이라하여

心和 精氣의 상태에 따라 경계를 陰陽으로 나누었으며, 和平하는 약으로 補精鎮心하는 처방을 주장하였다.

徐彬은 “前奔豚章既言有驚怖·有火邪, 皆以驚發得之, 此又另揭驚悸言之. 非詳其病所從得, 乃謂病有驚狂不安者, 有只心悸不寧者 驚乃邪襲於心, 在實邊, 故其寸口脈動, 動者, 有粒如豆也; 悸乃神不能主, 在虛邊, 故其寸口脈弱, 弱者脈來無力也. 動而弱者, 有邪襲之而心本原虛也, 故驚悸並見. 然而脈仍分屬, 動則驚氣之發, 弱則悸氣所形, 故曰動則爲驚, 弱則爲悸”(『金匱要略論注』)라하여 動悸의 구분과 함께 動悸가 모두 心虛에서 일어남을 밝히고 있다.

尤怡는 “驚則氣亂, 故脈動; 悸屬裏虛, 故脈弱. 動卽爲驚者, 因驚而脈動, 病從外得; 弱則爲悸者, 因弱而爲悸, 病自內生. 其動而且弱者, 則內已虛, 而外復乾之也.”(『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動悸를 각기 內外病因으로 起因함으로 구별하고, 動弱脈이 같이 나온 경우는 內外가 모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였다.

朱光被(峻明)는 “因物所感則爲驚, 神虛恍惕則爲悸. 分言之, 似有動靜虛實之別, 而驚則未有不悸, 悸則未有不驚者, 其原流自屬一致. 仲景獨取寸口, 以動而弱三字, 繪出驚悸之脈象, 而仍分疏之, 曰: 何以知其爲驚, 以其脈之厥厥動搖也; 何以知其爲悸, 以脈動之中, 而自軟弱也. 則脈之動而弱, 必兼見, 則證之驚與悸, 亦相應而生, 此自然之理也.”(『金匱要略正義』)라하여 결국 驚悸의 원류가 같음을 들어 仲景의 뜻이 驚悸의 구분보다는 驚과 悸의 病理的 연결성과 유사성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 2. 師曰 尺<sup>(1)</sup>脈浮하고 目睛暈黃<sup>(2)</sup>은 衄<sup>(3)</sup>未止<sup>(2)</sup>라 暈黃去하고 目睛慧了<sup>(4)</sup>하면 知衄今止<sup>(4)</sup>라

해석) 張仲景선생이 尺脈이 浮하고, 눈동자가 暈黃한 것은 衄血이 그치지 않을 것을 나타낸 것이고, 暈黃이 가시고, 눈동자가 밝아지면 衄血이 나올 것을 나타낸다.

## [校勘]

① 暈黃: 目睛黃을 일컫는다. 四周光影이 不清楚한 것이다. 『廣韻·二十三問』에 “暈, 日月旁氣.”이라

하였으니 四邊光影이 模糊하다는 뜻이다.

② 衄未止: ‘衄’뒤에 ‘必’字가 빠졌다, 『脈經』卷八第十三에 ‘衄’字 뒤에 ‘必’字가 있으니, 마땅히 이것을 근거로 보충한다.

③ 慧了: 밝고 상쾌한 것이다. ‘慧’와 ‘了’는 같은 뜻이다. 『廣韻·二十九條』에 “了, 慧也.”이라하였고, 慧琳의 『音義』卷二『便慧』條引『方言』에 “慧, 明也.”이라 하였다.

④ 今止: ‘今’은 時間副詞로서 ‘即(즉시)’의 의미가 있다.

[字句解]

(1) 尺: 혹 夫로 작성되었다.

(2) 目睛暈黃: 두가지 정황이 있다. 하나는 望診시에 黑睛의 여러 군데에서 黃暈이 發生한 것이다. 이것과 흰동자에 發黃한 것은 다르다. 두번째는 病人이 視物昏黃不清한 것이다.

(3) 衄: 鼻出血을 의미한다.

(4) 目睛慧了: 目睛이 清明하고, 視物이 밝고 밝은 것을 의미한다.

[考察]

本條는 脈證에 따른 衄血의 預後判別에 대해 논하고 있다. 尺部脈은 腎에 속하고, 脈은 沉에 응하지 浮에 응하지는 않으나, 지금 도리어 浮하니, 이것은 腎陰虧虛, 相火不潛하여 內動한 것이다. 肝은 目으로 開竅하고, 主藏血하니, 相火가 또한 寄內하면, 肝陰血不足으로, 火가 上炎하여, 目에 上擾한즉, 目睛暈黃, 視物不清하게 된다. 肝腎陰虛, 陽亢火動하면 반드시 迫血妄行, 熱傷陽絡하게 되어 衄血하게 되니, 故云衄未止. 暈黃退去, 目睛清明하여, 視物清晰하면 이것은 肝腎의 陰이 이미 회복된 것이니, 相火得降하고, 陽絡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아서, 血脈得이 안정을 찾는 것이니, 고로 衄血이 그칠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문은 曆代注家들이 모두 腎有虛火의 문제로 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다만 연관된 것이 肝胃肺의 다름이 있다.

尤在涇은 肝과, 徐忠可是 陽明胃經과, 趙以德은 肺와, 吳謙은 血熱보다는 血瘀의 側面으로 이해하였다.

徐彬은 “衄血爲清道之血, 從督脈由風府貫頂下鼻

中, 此肝腎熱鬱, 火沖陽經, 而經血妄出, 故云衄者其尺脈浮. 以尺主下焦, 肝腎有熱而虛則尺脈浮, 故前曰尺脈浮爲傷腎. 目睛屬肝, 陽明熱氣乘之, 則目睛暈黃. 乙癸同源, 故尺浮暈黃, 其邪正盛, 衄爲未止: 暈黃去則熱已衰, 更目睛慧了, 知腎熱已解, 則肝血無恙. 血乃陰屬, 無熱迫之, 則衄從何來, 故曰知衄今止.”(『金匱要略論注』)라하여 尺脈의 위치와 肝腎의 下焦에 해당하는 臟의 虛實에 따른 傳變과정으로 설명하였다.

尤怡는 “尺脈浮, 知腎有遊火; 目睛暈黃, 知肝人蓄熱, 衄病得此, 則未欲止, 蓋血爲陰類, 爲肝腎之火熱所逼而不守也. 若暈黃去, 目睛且慧了, 知不獨肝熱除, 腎熱亦除矣, 故其衄今當止.”(『金匱要略心典』)라하여 尺脈浮를 腎火의 문제로 目睛暈黃을 肝蓄熱의 각문제로 보고, 目睛의 정상화로 肝熱이 바로 잡히면, 당연히 腎熱도 바르게 되어 기전의 호전됨으로 설명하였다.

吳謙은 “浮脈主陽主表, 若目睛清潔, 主陽表病也; 目睛暈黃, 主血脈病也. 蓋以諸脈絡於目, 而血熱則赤, 血瘀則黃. 今目睛暈黃, 知其衄未止也; 若暈黃去, 目睛慧了, 知其衄已止, 故曰: 知衄今止也.”(『醫宗金鑒·訂正金匱要略注』)라하여 浮脈이 主陽主表하는 전제에서 目이 脈絡의 집합체가 되어 血瘀하여 目黃하게 되어 血脈病이 衄血의 豫候를 판단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3. 又曰 從春至夏<sup>①</sup>에 衄者는 太陽<sup>②</sup>이오 從秋至冬<sup>③</sup>에 衄者는 陽明<sup>④</sup>이라

해석) 또 이르시기를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衄血은 太陽이며,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衄血은 陽明이다.

[校勘]

① 從春至夏: 曹家達은 “此當作從冬至春, 傳寫之誤. 太陽傷寒, 見於冬令爲多; 太陽中風, 見於春令爲多. 太陽表實無汗之證, 血熱內擾, 不得外泄, 則沖於腦而爲衄.”이라하여 겨울에서 봄으로 마땅히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衄者太陽: 『脈經』卷八第十三에는 ‘衄’앞에 ‘發’字가 있으며 ‘衄者陽明’의 구문에도 역시 ‘衄’앞에 ‘發’字가 있다. 『總錄』卷七十『鼻衄統論』에서는 “衄

者太陽”을 “爲太陽衄”로 작성하였다.

③ 從秋至冬: 曹家達은 “此當作從夏至秋, 天氣炎熱, 腸胃易於化燥, 內實爲多.”이라하여 여름에서 가을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衄者陽明: 『總錄』에서는 “爲陽明衄”으로 작성하였다.

#### [考察]

本條에서는 四時氣候와 衄血의 關係에 대해 논하고 있다. 太陽이라함은 手太陽小腸, 足太陽膀胱을 포괄하면, 陽明이라함은 手陽明大腸, 足陽明胃을 포괄한다. 手足太陽陽明이러한 四經의 經脈은 모두 鼻를 지난다. 衄血은 鼻衄을 가리키며, 鼻衄은 太陽·陽明 兩經의 병이다. 春夏에는 陽氣가 發越하며, 太陽에 屬한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 “太陽爲開”이라하였으니 이것은 春生夏長하고, 陽氣外浮하는 것을 뜻하니, 陽氣가 升發太過하는 것과 같아, 陽熱擾動血脈하여 衄血에 이르게 되니, 故로 春夏衄血은 太陽에 屬한다. 秋冬에는 陽氣가 內藏하니, 陽明에 屬한다. 『素問·陰陽離合論』에: “陽明爲合”이라하였으니 이것은 秋收冬藏, 陽氣內藏하는 것을 뜻하니, 陽氣가 不能收藏하는 것과 같아, 甚或浮越不斂하여, 迫血妄行하여 衄血에 이르게 되니, 故로 秋冬衄血은 陽明에 屬한다. 다만 太陽主外, 陽明主內하니, 春夏陽氣는 升하므로 이때의 衄血은 外感에 多因하고, 秋冬陽氣는 降하므로 이때의 衄血은 多因內傷한다.

本條에서는 人體陽氣의 升降浮沉과 四時氣候의 變動와 연관하여, 春夏의 衄은 太陽에 속하고, 秋冬의 衄은 陽明에 속함을 설명하였다. 注家들은 經絡學說로 本條를 해석하였다.

趙以德은 “『內經』太陽爲開, 陽明爲合. 春夏氣主發生, 以開者應之, 故邪氣逼血從升發沖出. 秋冬主收藏, 以合者應之, 故邪鬱內極而後發出. 衄爲陽盛, 獨不言少陽, 以太陽陽明二經皆上交額中故也.”(『金匱玉函經二注』)라하여 太陽 陽明의 開合 관계와 春夏秋冬의 연관에 따라 설명하였다.

魏荔彤은 “從春至夏, 陽氣方升, 此時得衄, 多因外感風寒客於肌表, 而邪熱生於胸胃, 熱既內盛, 血遂上逆而致衄, 故曰太陽之衄, 以外感之因也. 從秋至冬, 陽氣方降, 此時得衄, 多因內傷, 津液耗於臟腑,

而邪熱生於三焦, 熱亦內盛, 血亦上逆而致衄, 故曰陽明之衄, 以內傷之因也. 是就其分屬大綱言之, 然春夏豈無內傷之衄, 秋冬豈無外感之衄, 又在人臨證審諦, 而不可拘執而言者矣.”(『金匱要略方論本義』)이라하여 陰陽氣運의 升降과 外感內傷의 관계로 설명하였으나, 말미에서 굳이 이 조문에 얽매이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尤怡는 “血從陰經並沖任而出者則爲吐, 從陽經並督脈而出者則爲衄, 故衄病皆在陽經. 但春夏陽氣浮, 則屬太陽, 秋冬陽氣伏, 則屬陽明爲異耳. 所以然者, 就陰陽而言, 則陽主外, 陰主內; 就三陽言, 則太陽爲開, 陽明爲合, 少陽之脈, 不入鼻額, 故不主衄也.”(『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吐衄의 關係에서 衄이 陽經督脈에 속함을 논하고, 太陽陽明, 陰陽, 三陽의 方面에서 각기 설명하였다.

#### 4. 衄家<sup>(1)</sup>는 不可汗<sup>(2)</sup>이니 汗出必額上陷<sup>(2)</sup>하고 脈緊急<sup>(2)</sup>하고 直視不能胸<sup>(3)</sup>하고 不得眠이라

해석: 衄家 衄血질환이나, 자주 衄血하는 사람은 汗法을 함부로 써서 병정을 깊게 해서는 안되니, 誤治하면 이마에서 땀이 반드시 나고, 脈緊急해지며, 눈동자를 부릅뜨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 [校勘]

① 不可汗: 『脈經』卷八第十三에 ‘不可’뒤에 ‘發其’의 二字가 있다. 羅天益은 “衄血妄行, 爲熱所迫, 更發其汗, 反助邪熱, 重竭津液, 必變凶證.”라하여 重熱로 인한 損津液으로 이해하였고, 尤怡는 “血與汗皆陰也 衄阻家複汗, 則陰重傷矣.”라고하여 陰重傷으로 이해하였다.

② 陷, 脈緊急: 『脈經』에 ‘陷’字 이후의 부분을 ‘促急而緊’으로 작성하고 있다. ‘促急而緊’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汗出傷陰하여 陽氣上越, 額部하니 돌연 머리를 포대기로 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③ 不能胸: 眼球를 轉動하지 못하는 것이다. 慧琳『音義』卷四에 ‘不胸’條에 이은 『考聲』에 “胸, 目動也.”이라하였다

④ 身汗: 『傷寒論』에서는 ‘身無汗’이라 작성되었으니 마땅히 ‘無’를 보충하여야 한다.

[字句解]:

- (1) 衄家: 항시 쉽게 衄血하는 사람.
- (2) 額上陷: 額上兩旁의 動脈이 血脫로 인하여 下陷不起한 것.
- (3) 胸: “瞬”과 음이 같다, 안구를 움직이는 것.

[考察]

本條에서는 衄家禁法과 誤汗의 變證에 대해 논하고 있다. 血과 汗은 모두 陰에 속하니. 『靈樞·營衛生會』에서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 하였다. 經에는 衄血으로 인하여 病人의 陰血이 약해졌을 때, 感外邪하면, 辛溫發汗劑를 쓸 수 없으니, 이는 汗血同源하기 때문이다. 만약 誤發汗하면, 陰血重傷하고, 經脈空虛하게 되니, 故로 額上脈陷不起하게 된다. 한편 目은 得血而能視하는데 이때 陰血虧不能榮目하게 되니, 故로 目睛直視不能轉動하게 된다. 또한 血虛하면 心神失養, 陰不潛陽하니, 故로 不得眠하게 된다. 本條는 傷寒論·太陽病에서, 衄家禁汗하고, 만약 誤發其汗 하여 變證迭出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徐彬은 “衄既爲陽經病, 似可從外解, 不知汗乃血液, 心主之, 衄家亡血過多, 若又汗, 則重亡其陰, 而陽氣爲之餒, 額之心部, 陰亡陽餒, 則必陷矣, 陷者如物之不堅滿也. 脈屬心, 血不能榮, 則失和緩之氣而爲緊急矣. 目得血而能視, 久衄復汗, 陰脫而直視不能轉動矣. 心血虧而虛陽擾擾, 則火逆不得眠矣.”(『金匱要略論注』)이라하여 心主血의 關係에서 파악하였다.

尤怡는 “血與汗皆陰也, 衄家復汗, 則陰重傷矣. 脈者血之府, 額上陷者, 額上兩旁之動脈因血脫於上而陷下不起也. 脈緊急者, 寸口之脈. 血不榮而失其柔, 如木無液而枝乃勁也. 直視·不眠者, 陰氣亡則獨勝也. 經雲: 奪血者無汗, 此之謂也.”(『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血脈의 關係로 제반문제를 설명하였다.

吳謙은 “衄, 該吐血而言也. 衄血·吐血之家, 陰已亡矣, 若發其汗, 汗出液竭, 諸脈失養, 則額角上陷中之脈, 爲熱所灼, 緊且急也. 目直視, 目瞪不轉睛也. 不能胸, 日睫不合也, 亦爲熱灼其脈, 引縮使然也. 不得眠, 陽氣不能行於陰也. 凡此之病. 皆陽盛陰微之危證, 故衄家慎不可汗也.”(『醫宗金鑒·訂正金匱要略注』)이라하여 熱灼과 陽盛陰微로 설명하고 있다.

5. 病人이 面無血色<sup>①</sup>하고 無寒熱<sup>②</sup>하며 脈沈弦者는 衄<sup>③</sup>이오 浮弱<sup>④</sup>하여 手按之絶者<sup>⑤</sup>는 下血이오 煩咳者<sup>⑥</sup>는 必吐血이라

해석) 病人이 얼굴에 핏기가 없고, 寒熱證의 뚜렷한 外感證候가 없는 상태에서, 脈沈弦한 경우는 衄血하고, 脈浮弱하고 깊이 누르면 끊어질 듯한 경우는 下血하고, 煩咳하는 경우는 반드시 吐血한다.

[校勘]

① 面無血色: 徐注本·尤注本 ‘無’字 뒤이어 ‘血’字가 없다. 面色蒼白한 것이고, 곧 失血하는 모습이다. 尤怡가 “面無色, 血脫者, 色白不澤也.”이라 하였다.

② 無寒熱: 病이 外感이 아니니 寒熱이 없다. 李炫이 “無寒熱, 表無邪也.”이라고 하였다.

③ 脈沉弦者衄: 吳廉이 “脈沉當是脈浮, 文義始屬, 必傳寫之說.”이라 하였으니 本篇第2條의 曾씨가 “尺脈浮 衄未止.”이라 하였으니 이 조문의 ‘沉弦’과는 다르고, 이와 같이 다름은, 症狀과 연계하여 考慮하면 앞부분에 脈浮는 衄證初起의 脈象이고, 故로 이 조문에서 ‘目睛暈黃’ ‘脈沉弦’이라함은 衄血이 만성화 되었을 때의 脈象으로 볼 수 있다.

④ 浮弱: 『脈經』에 ‘浮’앞에 ‘脈’字가 있다. 脈浮弱하고 按之即絶함에 이르는 것은 陽氣下陷, 하고 統攝力이 이미 다한 것이다. 故로 下血하게 된다.

⑤ 手按之絶者: ‘子’字는 衍文이다 『五臟風寒篇』, “按之益躁疾者死” “按之如覆杯” 等句가 증거이다. 『病源』卷二十七 『大使下血候』에는 ‘手’字가 없으니 역시 증거이다.

[字句解]

(1) 面無色: 『脈經』·『諸病源候論』·『千金方』·『外台秘要』 등을 따라서 “面無血色”이 옳다.

(2) 無寒熱: 惡寒發熱 등의 外感證候이 없는 것을 말한다.

(3) 煩咳者: 徐彬은 “煩屬心, 咳屬肺, 心肺病, 血隨虛火湧於濁道, 則從口出矣.”이라하였고 尤怡는 “煩咳者, 血從上溢, 而心肺焦燥也.”이라하였다.

## [考察]

本條는 衄血, 下血, 吐血의 脈證에 대해 논하고 있다. 『臟腑經絡先後病』에서 “色白者, 亡血也”; 『靈樞·決氣』에서 “血脫者色白, 夭然不澤”; 『血痺虛勞病』에서 “男子面色薄者, 主渴及亡血”이라 하였다. 病人의 面色白無華한 것은 脫血한 것이다. 經常衄血과 吐血及下血의 病人은 出血過多로 인해 氣虛血少하여 위로 얼굴에 영양하지 못하므로 面無血色하고, 病이 內傷으로 外感의 表證이 없으니 無寒熱한다. 內傷出血의 病證에는 吐血·衄血·下血의 差異가 있으니 다만 “面無血色, 無寒熱”한 상태를 모두 볼 수 있다. 만약 脈沉弦에서 沉은 腎에 속하고 弦은 肝에 속하니 이것은 腎水가 虛하여 涵養肝木하지 못한 것이니 肝氣偏旺 鬱積化火 上刑肺金 氣不肅降 火升氣逆하여 氣가 위로 넘쳐 衄血이 되는 것이고, 만약 脈浮弱無力 重按則無하면 脈弱은 血虛한 것이고 脈浮는 陰不斂陽 虛陽外浮한 것이니 陰血無陽相維, 血脫於下하게 되므로 下血 或은 婦人崩漏하게 된다. 面無血色하고 虛煩咳嗽하면 肺陰虛有熱함을 알 수 있으니 虛熱이 損傷肺絡하면 반드시 咳血하게 된다. 失血의 成因은 內傷外感의 區別이 있으니 本條의 各種失血證候는 無寒熱에 의해 內傷에 屬한 證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外感에 의한 衄下吐와는 區別되어야 한다. 面無血色 無寒熱하니 이것은 失血의 情況으로 病理變化의 不同에 의해 衄下吐의 區別이 있게 된다.

程林은 “病人面無血色, 脫血之象也. 上經曰: 男子脈虛沉弦, 無寒熱, 時目瞑兼衄. 今無寒熱, 而脈弦衄者, 則與上證不殊, 爲勞證也. 若脈浮弱, 手按之絕者, 有陽無陰也, 故知下血. 煩咳者, 病屬上焦也, 故知吐血.”(『金匱要略直解』)이라 하여 衄은 勞證으로, 下血은 有陽無陰으로 吐血은 上焦病으로 각기 해석하였다.

尤怡는 “面色白, 血脫者, 色白不澤也. 無寒熱, 病非外感也. 衄因外感者, 其脈必浮大, 陽氣重也; 衄因內傷者, 其脈當沉弦, 陰氣厲也. 雖與前尺脈浮不同, 其爲陰之不靖則一也. 若脈浮弱, 按之絕者, 血下過多, 而陰不充也. 煩咳者, 血從上溢, 而心肺焦燥也. 此皆病成而後見之診也.”(『金匱要略心典』)이라 하여 內傷 外感 衄血의 區別과 下血과 吐血의 病理를

설명하였다.

黃樹曾는 “脈沉爲腎·弦爲肝, 脈沉弦而不華色, 身無寒熱者, 顯屬肝腎之火上逆, 遍陽血由清道而出爲衄. 脈浮爲陽虛, 弱爲血虛, 手按之絕, 足征下焦之陰尤虛, 無陽氣維之, 心血下漏, 故面無色, 無寒熱. 脈浮弱手按之絕者, 主下血也. 煩咳由於肺胃之火上逆, 咳甚則陽絡傷而血外溢, 故煩咳無寒熱面無色者, 必吐血也.”(在『金匱要略釋義』)이라 하여 沈弦은 肝腎의 關係로 吐血은 肺胃火逆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 6. 夫吐血에 咳逆上氣<sup>①</sup>하고 其脈數而有熱<sup>②</sup>하며 不得臥者는 死<sup>③</sup>라

해석) 무릇 吐血, 咳逆上氣 脈數하고 熱證이 있으며, 不得臥한 것은 死證이다.

## [校勘]

① 咳逆上氣: 陳念祖는 “吐血後不咳, 其證順而易愈, 若咳逆上氣, 則陰虛而陽無附麗矣.”이라 하였다. 尤怡는 “吐血咳逆上氣, 陰之燦也.”이라 하여 重證임을 나타내었다.

② 脈數而有熱: 尤怡는 “脈數有熱, 陽獨勝也.”라 하였다.

③ 不得臥者死: 尤怡는 “以既燦之陰, 而從獨勝之陽, 有不盡不己之勢, 故死.”이라 하였고, 陳念祖는 “師未出方, 餘用二加龍骨湯加阿膠, 愈者頗多.”라 하여 해당처방을 언급하였다.

④ 未嘗: ‘未嘗’으로 작성하여야 마땅하다.

## [考察]

本條에서는 吐血의 預後에 대해 논하고 있다. 吐血과 咳嗽氣喘이 동시에 보일 경우에 그 血은 당연히 肺에서 나온다. 曹穎甫가 “吐血, 咳逆, 上氣, 此卽上第五條煩咳吐血之證.”이라 하였다. 咳嗽은 傷肺絡하고 血이 咳逆을 따라 吐出하는데 이런 경우에 氣血을 모두 상하게 된다. 吐血後에 陰血大虛하면 陽氣가 斂藏하지 못하게 되어 바깥에서 떠다니게 되니 咳喘不止와 함께 陰不戀陽하여 身熱·脈數 虛火上浮擾動心神하는 症狀이 나타나게 되므로 虛煩不得入眠하게 된다. 陰虛火旺으로 인하여 吐血後出現하는 脈數, 身熱, 咳逆上氣不得臥, 이것은 陰虛와 함께 陽愈旺한 반응이다. 陽이 더욱 왕성

해 지면 陰이 더욱 虛하게 되어 吐血不止하고 氣가 血脫을 따르게 되면 預後가 險惡하게 된다.

趙以德은 “此金水之臟不足故也. 外不足則火浮焰, 浮焰則金傷. 夫陰血之安養于內者, 腎水主之, 水虛不能安靜, 被火逼逐而血溢出矣. 血出則陽光益熾, 有升無降, 炎燂肺金, 金受其害, 因咳逆而上氣. 金水子母也, 子衰不能救母, 母亦受害, 不能生子, 二者之陰, 有絕而無復. 脈動身熱, 陽獨勝也. 不能臥, 陰已絕也, 陰絕, 陽豈獨生乎, 故曰死也.”(『金匱玉函經二注』)이라하여 金水の 傳變과정에서 이해하였다

徐彬은 “凡吐血先由陽虛, 後乃陰虛. 至陰虛而火日以盛, 有灼陰之火, 無生陰之陽. 咳則肺氣耗散, 逆而上氣, 則肝熱挾相火上乘, 脈數有熱, 則無陰, 不得臥, 則夜臥血不歸肝, 而木枯火燃, 君火變爲燥火. 陰陽俱虧, 凶證相並, 有立盡之勢, 故曰死.”(『金匱要略論注』)陰虛와 肝熱의 문제에서 이해하였다.

唐宗海는 “血隨氣爲運行, 氣以血爲依歸. 但病血而不病氣, 則氣足以資血原, 爲可治; 但病氣而不病血, 則血足以招氣歸, 亦爲可治. 惟氣血交病, 則不可治矣. 氣者水中之陽也, 腎水枯竭, 陽氣上越, 蒸灼肺金, 肺痿咳逆上氣不休, 則氣不歸根矣. 血者心火所化之陰汁也. 心中血管跳動, 而爲周身之動脈. 心血大虛, 其火獨旺, 則脈數身熱, 盜汗心煩, 不得安臥. 而血不灌溉矣.”(『金匱要略淺注補正』)氣血과 心肺의 問題로 이해하였다.

### 7. 夫酒客<sup>(1)</sup>咳者<sup>(1)</sup>는 必致吐血<sup>(2)</sup>하니 此는 因極飲過度所致也<sup>(3)</sup>일새라

해석) 무릇 술을 즐기면서 咳嗽가 있는 자는 반드시 吐血에 이르니 이것은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한 결과이다.

#### [校勘]

① 酒客咳者: 尤怡는 “酒之熱毒, 積于胃而熏於肺則咳.”이라하여 酒熱이 肺胃에 폐해를 입힘을 들었고, 黃元御는 “酒客咳者, 濕盛胃逆而肺氣不降也.”이라하여 濕邪로 인한 肺氣不降을 거론하였다.

② 必致吐血: 尤怡는 “肺絡熱傷, 其血必隨咳而吐出.” 肺絡이 病處임을 들었다

③ 此因極飲過度所致也: 尤怡는 “言當治其酒熱,

不當治其血也.”이라하였고 陳念祖는 “此言酒客吐血, 專主濕熱而言. 師未出方, 餘用瀉心湯及豬苓湯, 或五苓散去桂加知母石膏竹茹多效.”이라하여 해당 처방을 제시하였다.

#### [字句解]

(1) 酒客: 평소 음주를 많이하는 사람.

(2) 吐血: 咯血과 吐血을 말한다.

#### [考察]

本條는 酒客咳와 吐血의 病因病機에 대해 논하고 있다. 平素에 飲酒에 嗜好가 있는 사람은 쉽게 濕熱蘊胃 胃絡受損하니 吐血하게 되고 濕熱이 熏肺하고 肺가 肅降機能을 잃게 되니 咳하게 된다. 咳嗽不已 久咳或濕熱傷絡하면 咯血에 이른다.

趙以德은 “酒性太熱, 客焉不散, 則肝氣不清, 胃氣不守, 亂于胸中. 中焦之血, 不布于經絡, 聚而洶洶, 因熱射肺爲咳, 從其咳逆之氣溢出也, 此傷胃致吐血者.”(『金匱玉函經二注』)이와 같이 酒傷肝胃하고, 中焦血의 문란으로 각각 肺와 胃에 작용하여, 각기 咳血과 吐血에 이른다하였다.

徐彬은 “此言吐血不必盡由於氣不攝血, 亦不必盡由於陰虛火旺, 其有酒客而致咳, 則肺傷已極, 又爲咳所擊動, 必致吐血, 此非內因也, 故曰極飲過度所致. 則治之者, 當以清酒熱爲主可知.”(『金匱要略論注』)이라하여 氣不攝血이나, 陰虛火旺등의 內因에 의한 咳血 吐血이 아닌 이미 酒로 인해 肺가 상해 있는 상태에서 온 것이라 인식하였다.

尤怡는 “酒之熱毒, 積於胃而蒸于肺則咳, 久之肺絡熱傷, 其血必隨咳而吐出. 云此由極飲過度所致者, 言當治其酒熱, 不當治其血也.”(『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酒의 熱한 성격에 의해 肺胃를 손상하여 일어난 病變으로 인식하였다.

### 8. 寸口脈弦而大하니 弦則爲減이오 大則爲芤라 減則爲寒이오 芤則爲虛라 寒虛相擊<sup>(1)</sup>하니 此名曰革이라 婦人則半產漏下하고 男子則亡血<sup>(2)</sup>이라

해석) 寸口脈이 弦而大 한 경우에 弦은 減이고, 大는 芤이며, 減한 則 寒이고, 芤한 則 虛이며, 寒虛相擊한 것이니, 이것을 革이라한다. 婦人은 半產漏下하고, 男子는 亡血하게 된다.



## [校勘]

① 寒虛相擊: 『脈經』卷八第十三에 ‘擊’은 ‘搏’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것이 마땅하다. 徐彬은 “脈之弦者, 衛氣結也, 故爲減爲寒; 脈之大者, 氣不因也, 故爲朮爲虛. 至弦而大, 是初按之而弦, 弦可以候陽; 稍重按之而大, 大可以候陰, 不同而知其上爲邪實, 下爲正虛, 故曰寒虛相搏.”이라 하였다.

② 男子則亡血: 陸淵雷는 “此條已見血痺虛勞篇彼亡血下有失精二字, 此無之者, 彼爲虛勞言, 此專爲亡血言也.”이라 하여 이 조문이 亡血의 경우임을 분명히 했다.

## [考察]

本條에서는 虛寒亡血의 脈象을 陰陽에 따라 논하고 있다.

9. 亡血<sup>(1)①</sup>은 不可發<sup>②</sup>其表나 汗出則寒慄而振<sup>③(2)</sup>이라

해석) 亡血한 경우 發表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發表하여 惡寒하고 振顫하게 된다.

## [校勘]

① 亡血: 『脈經』卷八第十三에서 ‘亡血’뒤에 ‘家’字가 있다.

② 不可發: 『脈經』에서 ‘發’을 ‘攻’으로 작성하고 있다.

③ 汗出則寒慄而振: 『脈經』에서는 ‘栗’을 ‘慄’로 작성하고 있다. ‘栗’과 ‘慄’은 서로 통한다. ‘寒慄’은 寒戰하는 것을 말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王注에 ‘慄謂戰慄’이라 하였고 李紘이 “汗與血俱屬心液, 血亡液竭, 無復餘液作汗也. 今又發表, 則陰虛且更亡陽, 表間衛氣虛極, 故寒慄而振.”이라 하여 陰虛亡陽으로 이해하였으며 唐宗海가 “亡血是傷周身之血, 故重發其汗, 則周身寒慄而振. 蓋氣分之津液被傷, 不得充達周身, 氣津不能濟血液之窮, 欲發痙掣拘急之證, 故寒慄而振, 與瘡家去血再發其汗則痙, 其例一也.”이라 하여 氣分の 문제로 이해하였다.

## [字句解]

(1) 亡血: 一切出血證이다.

(2) 寒慄而振: 찬것을 두려워하고 몸을 떠는 것.

## [考察]

本條에서는 亡血禁用汗法과 誤汗傷陽의 變證에 대해 논하고 있다. 失血하면 氣血大虧하여 感受外邪하기 쉽다. 비록 表證이 있어도 역시 單用汗法解其表할 수 없다. ‘血汗同源’하여 血과 汗은 모두 陰에 속하고, 亡血로 이미 陰을 상한 상태에서 다시 發汗하면, 陰血이 다시 상함을 피할 수 없어서, 또 體內的 陽氣에 依附하여 影響을 받은 것이다. 故로 쉽게 津液外泄이 되는 血少陽虛의 상이 된다. 전신이 陽氣의 溫照를 받지 못하면, 筋脈도 陰血을 濡養받지 못하고 陽이 固外하지 못하고 陰이 內守하지 못하니 故로 寒慄而振하게 된다. 成無己가 “亡血發汗 則陰陽俱虛 故寒慄而振搖”과 일치한다.

本條는 『傷寒論·太陽病』篇87條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몇 글자가 들어가고 나감이 있으나 다만 亡血家禁汗의 뜻은 같다.

本條와 第四條는 亡血者禁汗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다만 第四條는 誤汗後에 傷陰한 경우이고, 이 조문은 陽虛한 경우이다. 病理變化에서는 다르지만, 內在因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으니, 體質이 偏陰·偏陽의 差異가 있어서 陰虛한 사람이 誤汗하면 使陰液更傷하여 脈緊急, 目直視, 不得跟等の 陰失濡潤한 症狀이 나타나고, 陽虛한 사람이 誤汗하면 傷陰하게 되고 또한 陽氣도 更傷하여 寒慄而振하는 陽失溫照의 症狀이 나타난다.

徐彬은 “此言亡血家雖有表邪, 不可發汗, 汗則因亡血而元陰本虛. 又因汗而虛其表中之陽, 則內無以守, 外無以固, 幫虛極如冷而寒慄無陽自衛也. 振者虛不能自主也.”(『金匱要略論注』)이라 하여 誤汗으로 인한 表陽손상에 대해 논하였다.

尤怡는 “亡血者, 亡其陰也, 更發其表, 則陽亦傷矣. 陽傷者外不固, 故寒慄, 陰亡者內不守, 故振振動搖. 前衄血復汗, 爲竭其陰, 此則並亡其陽, 皆所謂粗工嗜嗜者也.”(『金匱要略心典』)이라 하여 寒慄은 陽傷에, 振은 陰傷으로 인식하였다.

吳謙은 “凡失血之後, 血氣未復, 爲亡血也, 皆不可發汗. 失血之初, 固屬陽熱, 亡血之後, 熱隨血去, 熱

雖消而氣逐血虛，陽亦微矣；若發其汗，則陽氣衰微，力不能支，故身寒慄慄，而振振聳動也。發陰虛之汗，汗出則亡陰，即發吐衄之汗也，故見不得，不得眠，亡陰之病也；發陽虛之汗，汗出則亡陽，即發亡血之汗也，故見寒慄而振，亡陽之病也。”(『醫宗金鑒·訂正金匱要略注』)이라하여 亡陰과 亡陽의 區別과 본조를 亡陽으로 分類하였다.

10. 病人胸滿<sup>①</sup> 하고 唇痿<sup>②</sup> 하고 舌青<sup>③</sup> 하고 口燥하고 但欲漱水<sup>④</sup>로대 不欲咽<sup>⑤</sup>하고 無寒熱하며 脈微大來遲<sup>⑥</sup>하고 腹不滿하며 其人言我滿하면 爲有瘀血<sup>⑦</sup>이라

해석) 病人이 胸滿 唇痿, 舌青, 口燥하나 그저 물로 가볍게 입을 적실뿐이고 마시지는 않았으며, 寒熱證의 특이한 症狀이 없으며, 脈微大하고, 遲하고, 腹滿하지 않으나 스스로 腹滿感을 호소하면, 이것은 瘀血로 인한 것이다.

[校勘]

① 胸滿: 胸滿의 原因은 다양하다. 風寒으로 인해 表實無汗, 胸滿하면 喘을 겸하고; 裏實로 인하면 便澁煩熱, 口渴引飲을 겸하고 留飲으로 인한 것은 咳唾引痛, 胸滿不得臥 등의 症狀을 보인다. 尤怡가 “血瘀而氣爲之不利也”라고 하여 이것으로 原因을 설명하였다.

② 唇痿: ‘痿’는 ‘萎’의 音誤이다. 慧琳『音義』卷三十一〈菱黃〉條에 『文字典說』을 들어서 “萎, 枯槁也.”이라하였으니 ‘唇萎’는 唇의 不澤함을 나타낸다.

③ 舌青: 李炆이 “舌爲心竅. 其色紅, 血瘀則火氣衰冷, 心血不生, 故舌青也.”이라하여 血瘀로 인한 火氣心血的 쇠함으로 설명하였다.

④ 不欲咽: 『脈經』卷八第十三에서 ‘咽’은 ‘嚥’으로 작성되었다. ‘咽’과 ‘嚥’은 음이 유사한 자이다. 『漢書·匈奴傳下』顏注에서 “咽, 吞也.” 『說文·口部』에 “吞, 咽也.”라 하였다.

⑤ 脈微大來遲: 李炆이 “微大者, 稍大之意, 非微而又大也. 來遲者, 血瘀脈澀滿也”이라하였다.

⑥ 腹不滿, 환자스스로가 배가 가득찬듯하다고

하는 것이다. 瘀血에 의한 것이다: 曹家達은 “腹不滿, 無宿食也. 病者自言滿, 其爲蓄血無疑. 輕則桃核承氣. 重則抵當湯丸, 視病之輕重而酌劑可也.”이라하여 해당 處方에 대해 논하였다.

[字句解]

(1) 唇痿: 痿는 萎과 같은 의미이다. 口唇이 마르고 윤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考察]

本條는 瘀血의 脈證에 대해 논하고 있다. 瘀血阻滯, 氣機不利하면 胸滿하게 된다. 瘀血이 內停하면 新血이 생겨나기 힘들게 되고, 氣血이 唇에 榮養하지 못하게 되어 唇色이 暗而不澤하게 된다. 心主血脈 開竅於舌하니 血脈循行이 不暢하면 舌色이 靑紫 혹은 紫斑이 있게 된다. 瘀血氣滯 陰津不布 津液不能上承하면 口乾燥하게 되는데 “但欲漱水不欲咽”에 대해서 注家가 각기 다른 설을 주장하였다. 趙以德은 “口燥但欲漱水不欲咽者, 熱不在內, 故但欲漱水以潤其燥耳.”라하였고, 尤在涇은 “血結則氣燥也”라하였고, 『金鑒』에서는: “熱在血分”이라하였으며, 徐忠可是 “瘀血證不甚則但漱水, 甚則亦有渴者, 蓋哥哥久而熱鬱也.”라 하였다. 趙의 설이 當하다. 病은 內傷瘀血에서 생겨난 것으로 外邪를 感受받은 것이 아니므로 惡寒發熱의 外感表證이 없다. 脈微大來遲는 脈象이 비록 크나, 다만 脈勢不盛, 往來滯澀而緩한 것은 瘀血阻滯, 氣血不暢한 所致이다. 宿食·水氣 등의 邪氣가 病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瘀血이 血脈에 停留하여 氣機의 運行이 잘 되지 않게 되므로 病人은 腹間脹滿을 자각하면, 外形에 이런 症狀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徐彬은 “仲景論婦人有瘀血, 以其證唇口乾燥故知之, 則此所謂唇痿口燥, 即口乾燥, 足證瘀血無疑矣. 然前一證, 言漱水不欲咽, 後證又言渴, 可知瘀血證不甚, 則但漱水. 甚則亦有渴者, 蓋瘀久而熱鬱也.”(『金匱要略論注』)이라하여 갈증을 瘀血證의 輕重을 따지는 근거로 보고, 아직 瘀血症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熱鬱한 상태로 파악하였다.

尤怡는 “胸滿者, 血瘀而氣爲之不利也; 唇痿舌靑, 血不榮也; 口燥欲漱水者, 血結則氣燥也; 無寒熱, 病不由表也; 脈微大來遲, 血積經隧, 則脈澀不利也; 腹

不滿，其人言我滿，外無形而內實有滯，知其血積在陰，而非氣塞在陽也。故曰爲有瘀血。”(『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본조문은 순전히 瘀血 阻滯의 문제이지, 氣塞 등 陽의 문제가 아니라 하였다.

吳謙은 “表實無汗，胸滿而喘者，風寒之胸滿也；裏實便澀，胸滿煩熱者，熱壅之胸滿也；面目浮腫，胸滿喘不得臥者，飲停之胸滿也；呼吸不快，胸滿太息而稍寬者，氣滯之胸滿也。今病人無寒熱他病，惟胸滿·唇萎·舌青·口燥·漱水不欲咽。乃瘀血之胸滿也。唇·舌·血華之處也，血病不榮，故痿痺色變也；熱在血分，故口燥·漱水不欲咽也；脈微大來遲，陰凝之診，則當腹滿，今腹不滿，詢之其人，言我滿在胸不在腹也，與上如是之證推之，爲有瘀血也。”(『醫宗金鑒·訂正金匱要略注』)이라하여 胸滿을 風寒，熱壅，飲停，氣滯，瘀血에 따라 설명하였으며, 陰凝과 瘀血을 區別하고 있다.

### 11. 病者如熱狀<sup>①</sup>하여 煩滿하고 口乾燥而渴하며 其脈反無熱<sup>②</sup>하면 此爲陰伏<sup>③</sup>이오 是瘀血也니 當下之<sup>④</sup>라

해석) 病情이 熱伏과 비슷하여, 煩滿, 口乾燥而渴 등의 症狀이 있으나, 그 脈象이 오히려 無熱하면 이것은 陰伏으로 瘀血證이니 마땅히 下法을 사용해야 한다.

#### [校勘]

① 如熱狀: 徐注·尤注에서 ‘如’에 뒤이어 ‘有’字가 있다. ‘熱狀’은 則 煩滿·口乾·燥渴 등을 말한다.

② 其脈反無熱: 徐彬이 “裏有熱則脈應數. 反無熱, 謂不見洪數之脈也.”이라하였다.

③ 此爲陰伏: 魏荔彤이 “陰伏者, 盛熱伏于陰分血分.”이라하였고 尤怡는 “有熱證, 而無熱脈, 知爲血瘀下流, 不能充澤所致, 故曰此爲陰伏.”이라하였다.

④ 當下之: 陸淵雷가 “下之, 亦不必桃核承氣·抵當湯丸, 卽犀角地黃加大黃黃芩及瀉心湯之類, 亦得稱下也.”이라하여 해당처방을 기술하였다.

#### [字句解]

(1) 如熱狀: 쉽게 發熱하는 상태.

(2) 陰伏: 血은 陰이고, 陰伏은 瘀血이 久鬱化熱

하여, 血分에 熱伏한 상태이다.

#### [考察]

本條는 瘀血化熱의 脈證과 治法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心煩·口乾·口渴 등症은 熱證으로 “故謂如熱狀”이라하였다. 瘀血久하면 化熱되고, 血中瘀熱이 宣泄되지 못하면, 故로 滿而煩悶, 口乾燥而渴하게 된다. 熱이 氣分에 있지 않고, 血分에 있으니, 故로 脈을 살피면, 洪大滑數 등의 熱象을 볼 수 없다. 이것은 瘀血衄滯日久하여, 鬱而化熱伏于血分한 所致이다, 故로 “此爲陰伏”이라하였다. 瘀血不去하면, 즉 鬱熱不解하니, 治법은 마땅히 攻下瘀血이며, 瘀血者, 鬱熱이 풀리면 症狀도 없어지니. 下法의 方을 사용한다, 『金鑒』에서는 “宜桃核承氣湯·抵當湯·丸之類”을 선용한다 하였으니, 病證을 살펴 조심해서 써야한다.

“此爲陰伏”에 대하여 注家들의 견해가 다르니, 『金鑒』에 : “其人當得數大之陽脈, 今反見沉伏之陰脈, 是熱伏於陰, 乃哥哥血也.”라하였고, 曹穎甫는 “陰血內伏則脈不奮興”이라하여 脈으로 설명하였고, 尤在涇은 “陰伏者, 陰邪結而伏於內也.”하였으며, 黃樹曾은 “血屬陰, 血瘀於內, 故曰陰伏”이라하였다.

魏荔彤은 “再或病者如熱症, 心煩胸滿, 口乾舌燥而且渴, 俱爲熱證也. 但診其脈反無熱, 則是內眞寒外假熱乎? 下眞虛上假實乎? 而不知俱非也. 此爲陰伏, 是瘀血也. 陰伏者, 盛熱伏于陰分血分, 且沉于下焦血室, 至深而奧, 故謂之伏也. 熱入于此, 必膠滯而涼, 非下之不爲功也.”(『金匱要略方論本義』)이라하여 陰伏의 의미를 下焦血室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吳謙은 “此承上文或詳脈證, 以明其治也. 如熱狀, 卽所謂心煩胸滿, 口乾燥渴之熱證也. 其人當得數大之陽脈, 今反見沉伏之陰脈, 是爲熱伏於陰, 乃瘀血也. 血瘀者當下之, 宜桃核承氣, 抵當湯·丸之類也.”(『醫宗金鑒·訂正金匱要略注』)이라하여 熱伏과 陰伏의 多를 인식하고 治법에 대해 논하였다.

黃樹曾은 “病者如有熱狀, 謂病者煩滿口乾燥而渴, 儼如熱證所呈之證狀, 然其脈無浮滑數促之象, 故曰反無熱, 足征其非熱證. 煩滿者, 胸滿且煩也, 血瘀而氣爲之不利, 故胸滿, 口燥亦爲血瘀阻氣不能化液, 其兼煩而口乾且渴者, 乃瘀久熱鬱使然. 血屬陰, 血瘀於內, 故曰陰伏. 當下之, 謂當用大黃桃仁蟅虫等

藥下其瘀血也。”(『金匱要略釋義』)이라하여 熱伏의 症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비되는 陰伏의 症狀에 대해 소상히 논하였다.

12. 火邪<sup>①</sup>者는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라

[桂枝救逆湯]方

桂枝三兩, 去皮 甘草二兩, 炙 生薑三兩 牡蠣五兩, 熬龍骨四兩

大棗十二枚 蜀漆三兩, 洗去腥

右爲末하야 以水一斗二升으로 先煮蜀漆하야 減二升하면 內諸藥하고 煮取三升하야 去滓하고 溫服一升이라

해석) 火邪가 있는 경우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을 사용한다.

[校勘]

① 火邪者: 徐彬이 “因灸炳且熱且驚, 以致邪結胸中, 驚狂不安.”이라하였고 黃元御는 “火邪者, 以火劫發汗而中火邪也, 因之而驚生狂作.”이라하였다.

[字句解]

(1) 火邪: 燒針·艾條·火熏 등의 治법을 誤用하여 劫汗亡陽하여, 驚狂起臥不安의 變證에 이른 것.

[考察]

本條는 火劫致驚의 治法에 대해 논하고 있다. “火邪”는 指因使用熏·費·燒針 등을 사용했을 때 發生하는 病變이다. 『傷寒論』119條에서 “太陽傷寒者, 加溫針必驚也.”라고 하였고, 114條에서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清血, 名爲火邪.”라 하였다. 本條에서는 方證에 대해 논하고 있다. 『傷寒論』112條의 “傷寒, 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臥起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를 근거로 한다, 마땅히 心悸·驚狂·臥起不安 등의 症狀이 있다. 火劫發汗, 汗多損傷心陽하면, 心神不得斂養하게되어, 心胸陽氣不足, 水飲痰邪乘機擾心, 心被痰擾하니, 故로 上述한 症狀이 發生한다. 治법은 마땅히 扶心陽·安神氣·去痰邪이며,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을 사용한다.

本證의 亡陽과 少陰證의 亡陽은 다르다. 少陰亡陽은 損傷腎陽하여, 四肢厥冷, 大汗吐利, 脈微欲絕等症을 多見하게 되고, 四逆·眞武 등으로 回陽救逆하는 것이고. 本證의 亡陽은 火邪迫汗, 汗多損傷心陽하는 것으로 인하여 心悸·驚狂·臥起不安等症에 이른 것이니,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을 사용하며 이 處方은 火邪致病이외에, 心陽不足, 痰擾心神하여 驚狂, 臥起不安 等症에 응용할 수 있다.

徐彬은 “此方治驚, 乃治病中之驚狂不安者, 非如安神丸·鎮驚丸等之鎮心爲言也. 『奔豚氣篇』中雖有驚怖等四部病, 皆從驚恐得之句, 然病由虛聲所驚, 可以鎮浮而愈. 若因灸炳且熱且驚, 以致邪結胸中, 驚狂不安, 則必驅散其胸中之邪爲主, 故桂枝之爲火邪者. 見胸中者, 清陽之所居, 乃火劫亡陽致神明散亂. 故以桂甘薑棗, 宣其上焦之元陽, 則燒火自息, 驚則必有瘀結, 故加常山苗蜀漆破血, 療胸中結邪, 而以龍骨之甘澀平, 牡蠣之酸成寒, 一陽一陰, 以交其心腎, 而寧其散亂之神, 若桂枝湯去芍藥, 病不在肝脾, 故嫌其酸收入腹也.”(『金匱要略論注』)이라하여 胸中清陽의 문제로 이해하여 상기 處方이 마땅함을 설명하였다.

魏荔彤은 “此乃去芍藥加蜀漆者, 去其酸寒而得益以辛溫也. 火邪上逆, 挾血妄行, 遇寒而凝滯于胸肺, 必生他變, 易以蜀漆之辛溫, 行血救逆而無克伐破耗之虞, 法至善也. 其桂枝湯本方之用, 無非升陽氣, 和營衛. 加龍骨牡蠣之澀, 以治水逆之法治血逆, 變而不變者也. 且妙在桂枝散邪而非傷陽之物, 更能助陽; 蜀漆行血而非耗陰之物, 更能滋陰; 龍骨牡蠣制逆上之血而無走血驅邪之猛厲. 所以爲治火邪之良方也.”(『金匱要略方論本義』)이라하여 去芍藥하고 加蜀漆龍骨牡蠣한 이유를 味로써 설명하였다.

陳念祖은 “火邪者, 所包者廣, 不止以火逼劫, 亡陽驚狂一證, 然舉起方治, 可以啓其悟機. 但認爲火邪爲主, 卽以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金匱要略淺注』)라고 하여 本편 조문 이외의 火邪의 病變이 있음을 주의시켰다.

本條에는 脈象 症狀이 없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注家중에는 『傷寒論』에 있는 ‘驚狂’ 등을 근거로 억지로 해석하여서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李紘은 ‘句多不全’이라고 생각하였고 唐宗海는 ‘有

脫簡'이라고 생각하였으니, 兩說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傷寒論』112條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必驚狂.”과 第114條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閤血, 名曰火邪.”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本篇의 제일 앞에 “動卽爲驚, 弱則爲悸”의 뜻을 생각하면 서로 맞지가 않으니 어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 13. 心下悸者<sup>①</sup>는 半夏麻黃丸主之<sup>②</sup>라

[半夏麻黃丸]方

半夏 麻黃 等分

右二味를 末之하여 煉蜜和丸小豆大하고 飲服三丸하니 日三服이라

해석) 心下悸한 경우 半夏麻黃丸을 사용한다.

[校勘]

① 心下悸者: 悸는, 原因이 다양하다. 氣虛에 屬한 것은, 氣短이 나타나고; 血虛에 屬한 것은, 心下空虛, 面色蒼白을 나타나고; 火에 屬한 것은, 心中煩熱을 나타내고; 痰飲에 屬한 것은, 心中惕惕, 或兼眩冒을 나타낸다. 本條에는 脈象·症狀이 없으니, 半夏麻黃丸을 사용하므로 心下停飲해서, 水氣凌心하여 悸에 이른 것에 속한다. 麻黃을 쓴것은 通心陽하기 위함이다.

② 半夏麻黃丸主之: 麻黃은 心疾을 治療한다. 『本經』에는 부재한다, 『金匱』에는 겨우 이 한 예만 있다. 『千金』卷十三第二에 “安心散, 治心熱滿, 煩悶驚狂.”에서 그 방중에 麻黃이 있다, 唐代에는 治心疾에 겨우 사용되고, 宋元代 이후에는 보기도 드물다. 明清대의 醫案에 약간 기재되어 있는 정도이다. 慎用하여야 한다.

③ 飲服: 『證類本草』卷十에 ‘半夏’條『圖經』引張仲景 ‘飲’을 ‘每’로 작성하고 있다. 바른 것이다.

[考察]

本條는 水飲이 悸로 발전하였을 때의 治法에 대해 논하고 있다. 心下는 胃院部位를 뜻하며, 胃의 停飲이 上凌于心하고, 心陽被遏하므로 心과 胃院處에 悸動感이 느껴지게 된다. 本條에서 心下悸아래 第一條의 “弱則爲悸”는 病因에서 完全히 다른

것이며, “弱則爲悸”는 氣虛血少하여 心이 養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고, 本條의 悸는 水飲上逆한 것이 원인이 되므로 半夏麻黃丸降逆化飲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다.

尤怡는 “此治飲氣抑其陽氣者之法. 半夏蠲飲氣, 麻黃發陽氣, 妙在作丸與服, 緩以圖之, 則麻黃之辛甘, 不能發越津氣, 而但升引陽氣; 卽半夏之苦辛. 亦不特蠲除飲氣, 而並和養中氣.”(『金匱要略心典』) 이라하여 본조문을 飲氣가 陽氣를 抑한 상태로 파악하였다.

陳念祖는 “此爲悸證出其方也. 但悸病有心包血虛火旺者, 有腎水虛而不交於心者, 有腎邪凌心者, 有心臟自虛者, 有痰飲所致者, 此則別無虛證, 惟飲氣之爲病歟?(『金匱要略淺注』)이라하여 悸의 주원인을 虛로 보고, 飲氣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唐宗海는 “傷寒論心下悸, 用桂枝以宣心陽, 用茯苓以利水邪; 此用半夏·麻黃, 非故枝而二子也. 蓋水氣凌心, 則心下悸, 用桂枝者, 助心中之火以敵水也, 用麻黃者, 通太陽之氣以泄水也; 彼用夜苓, 是從脾利水以滲入膀胱, 此用半夏, 是從胃降水以抑其沖氣, 沖降則水隨而降. 方意各別, 學者正宜鉤考, 以盡法之變. (『金匱要略淺注補正』)이라하여 桂枝類나 茯苓類 대신 半夏나 麻黃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14. 吐血不止者<sup>①</sup>는 柏葉湯主之<sup>②</sup>라

[柏葉湯]方

柏葉 乾薑各三兩 艾葉<sup>③</sup> 三把

右三味를 以水五升과 取馬通汁一升으로 合煮하여 取一升하고 分溫再服<sup>④</sup>이라

해석) 吐血이 멎지 않는 경우는 柏葉湯을 사용한다.

[校勘]

① 吐血不止者: 徐彬은 “此重不止二字, 是諸寒涼止血藥皆不應矣.”이라하였다.

② 柏葉湯主之: 尤怡는 『仁齋直指』를 들어 “血遇熱則宣行, 故止血多用涼藥, 然亦有氣虛挾寒, 陰陽不相爲守, 榮氣虛散, 血亦錯行者, 此乾薑艾葉之所以用也. 而血既上溢, 其浮盛之勢, 又非溫藥所能禦

者, 故以柏葉抑之使降, 馬通引之使下, 則妄行之血順而能下, 下而能守矣.”이라하여 乾薑과 艾葉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唐宗海는 “柏葉湯與瀉心湯是治血證兩大法門, 仲景明明示人一寒一熱, 以見氣寒血脫, 當溫其氣; 氣逆血熱, 當清其血.”이라하여 瀉心湯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③ 艾葉: 『證類本草』卷十二 ‘柏實’條에서 『圖經』을 들어 張仲景은 ‘阿膠’라 작성하였다.

④ 分溫再服: 『證類本草』중에서 『圖經』을 들어 張仲景이 설명한 服法과 이 문구는 차이가 크다. 비교적 후대에 기술되어 『金匱』의 원래 모양은 옛날과 다르다. “三味, 以水二升, 煮一升, 去滓, 別絞馬通汁一升相和, 合煎取一升, 綿濾一服盡之.”이라되어 있다.

[考察]

本條는 虛寒吐血의 治法에 대해 논하고 있다. “吐血不止”는 吐血 과다를 일컫는 거나, 或은 量少日久한 것으로, 中焦虛寒하여, 血不歸經하게 된 所致이다. 吐血不止를 治療하는 이외에 마땅히 面色萎黃, 肢冷, 精神不振, 舌淡胖大, 脈虛軟無力 등을 살펴야 한다. 治療方은 柏葉湯을 활용한 溫中止血이 적합하다.

徐彬은 “此重不止二字, 是謂寒涼止血藥皆不應矣. 吐血本由陽虛不能導血歸經, 然血止而陰虧, 故以柏葉之最養陰者爲君, 艾葉走經爲臣, 而以乾薑溫胃爲佐, 馬通導大便下爲使. 馬通乃馬屎絞汁, 如乾屎以水和之, 愚意無馬通童便亦得.”(『金匱要略論注』)이라하여 不止의 의미를 寒涼止血로 治療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

魏荔彤은 “柏葉性輕質清, 氣香味甘, 治上部滯膩之聖藥也. 血凝於胸肺方吐, 開斯行, 行斯下注不上越矣; 佐以薑艾之辛溫, 恐遇寒而又碍也, 合以馬通汁破宿血, 養新血吐衄有專功, 是有血熱妄行之治也.”(『金匱要略方論本義』)이라하여 각 韓藥別 氣味에 따른 方解를 하였다.

尤怡는 “仁齋直指云: 血遇熱則宣行, 故止血多用涼藥, 然亦有氣虛挾寒, 陰陽不相爲守, 營氣虛散, 血亦昏行者, 此乾薑·艾葉之所以用也. 而血既上溢, 其浮盛之勢, 又非溫藥所能御者, 故以柏葉抑之使降, 馬通引之使下, 則妄行之血順而能下, 下而能守也.”

(『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出血의 情狀에 따른 用藥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吳謙은 “吐血之病, 熱傷陽絡, 當清其熱; 勞傷陽絡, 當理其損. 今以柏葉湯溫散之品, 而治吐血不止者, 則必是熱伏陰分, 用此宣發, 使熱行陽分, 血不爲熱所迫, 則自止也.”(『醫宗金鑑·訂正金匱要略注』)이라하여 상기 처방이 熱伏陰分의 狀態에 쓸 수 있는 處方임을 분명히 했다.

15. 下血에 先便後血<sup>①</sup>하면 此는 遠血<sup>②</sup>이니 黃土湯主之라

[黃土湯]方亦主吐血衄血

甘草 乾地黄<sup>②</sup> 白朮 附子<sup>③</sup>炮 阿膠 黃芩各三兩 灶中黃土半斤

右七味를 以水八升으로 煮取三升<sup>④</sup>하면 分溫二服이라

해석) 下血하는 경우에 便을 본 후 血이 보이면 遠血이니 黃土湯을 사용한다

[校勘]

① 先便後血: 『脈經』卷八第十三에서 ‘先’字와 ‘後’의 모두 뒤따라서 ‘見’字가 있다. 唐宗海는 “血者脾之所統, 先便後血, 乃脾虛氣不攝血, 故便行氣下泄, 而血因隨之下.”라하여 脾虛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② 乾地黄: 『千金』卷十二第六에는 없다.

③ 附子: 『千金』에서 ‘乾薑’으로 작성되어 있다.

④ 煮取三升: 『千金』에서 ‘煮取’句에 뒤따라서 ‘去滓下膠’四字가 있다. 바른 것이다

[字句解]

(1) 遠血: 脾가 中焦에 거하고, 肛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遠血이라한다.

[考察]

本條는 虛寒性 便血의 證治에 대해 논술하였다. 피가 아래의 陰竅로 나오는 것을 下血이라고 한다. 『素問·陰陽別論』에 이를 結陰이라고 하였고 後世에는 便血이라고 하였다. 大便이 먼저 나오고 피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는 直腸以上에서 出血된 것으로 遠血이라고 한다. 이는 주요 原因으로는

中氣虛寒，脾失統禦 등이다.

徐彬은 “下血較吐血勢順而不逆，此病不在氣也，當從腹中求責，故以先便後血，知未便時血分不動，直至便後努責，然後下血，是內寒不能曙脾，脾陽不足，不能統血。脾居中土，自下焦而言之，則爲遠矣。故以附子溫腎之陽，又恐過燥，阿膠·地黃壯陰爲佐，白術健脾之氣，脾又喜涼，故以黃芩·甘草清熱，而以經火之黃土，與脾之類者，引之入脾，使暖氣于脾中，如冬時地中之陽氣，而爲發生之本，眞神方也。脾腎爲先後天之本，調則營衛相得，血無妄出，故又主吐衄。愚謂吐血自利者尤宜之。”(『金匱要略論注』)이라 하여 脾陽虛로 이해하여서 健脾하는 것을 주로 할 것을 논하였다.

尤怡는 “下血，先便後血者，由脾虛氣寒，失其統御之權，而血爲之不守也。脾去肛門遠，故曰遠血。黃土溫燥入脾，合白朮·附子以復健行之氣，阿膠·生地黃·甘草以益脫竭之血，而又慮辛溫之品，轉爲血病之厲，故又以黃芩之苦寒，防其太過，所謂有制之師也。”(『金匱經略心典』)이라 하여 黃芩의 작용을 引經보다는 太過함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唐宗海는 “血者，脾之所統也。先便後血，乃脾氣不攝，故便行氣下泄，而血因隨之以下。方用灶土草木建補脾土，以爲攝血之本；氣陷則陽陷，故用附子以振其陽；血傷則陰虛火動，故用黃芩以清火；而阿膠·地黃又滋其既虛之血。合計此方，乃滋補氣血而兼用溫清之品以和之，爲下血崩中之總方。”(『金醫要略淺注補正』)이라 하여 滋補氣血하는 效能이 있으면서 溫清한 藥物로 전체를 통괄하였다.

## 16. 下血에 先血後便<sup>①</sup>하면 此는 近血<sup>(1)</sup>也니 赤小豆當歸散主之라 方見狐惑이라

해석) 下血하는 경우, 먼저 血이 나오고 後에 便을 보는 경우, 이를 近血이라하며, 赤小豆當歸散을 사용한다. 狐惑篇에서 處方을 참조하라.

[校勘]

① 先血後便: 『脈經』卷八第十三에서 ‘先’과 ‘後’에 뒤따라서 모두 ‘見’字가 있다.

[字句解]

(1) 近血: 唐宗海는 “近血者는 卽今之臟毒痔瘡常

帶膿血이 是也.”라 하여 臟毒痔瘡에 항상 膿血이 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濕熱便血의 證治에 대해 논술한다. 出血이 우선하고, 大便이 후에 나오는 것은, 出血部位가, 肛門에 가까운 것이니, 故로 近血이라 칭한다. 증상은 大便下血, 血色鮮紅, 腹痛字大便不暢, 舌苔黃膩, 脈象濡數 등이다. 近血의 形成은 濕熱蘊結于大腸하여, 損傷脈絡한 所致이다. 이것은 『素問·生氣通天論』에 소위 “腸澼爲痔”이라하고 後世에 “臟毒”·“腸風”이라 칭하는 것이다. 處方은 赤小豆當歸散으로 清利濕熱 活血化瘀시킨다.

程林: 此『內經』所謂飲食不節, 起居不時, 則陰受之, 陰受之則入五臟, 爲腸澼下血之屬, 故用當歸以和血脈, 赤豆以清臟毒, 與黃土湯不伴也. 『梅師方』云: 熱清下血, 或食熱物發動, 以赤小豆爲末, 水調服. 則知此方治臟毒下血, 黃土湯治結陰下血, 有霄壤之分也.(『金匱要略直解』)이라하여 생활습관에 의해 陰分이 손상되고, 五臟의 문제로 發生한다고 이해하였다.

尤怡는 “下血先血後便者, 由大腸傷於濕熱, 而血滲于下也. 大腸與肛門近, 故曰近血. 赤小豆能行水濕, 解熱毒, 當歸引血歸經, 且舉血中陷下之氣也.”(『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오로지 大腸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唐宗海는 “近血者, 卽今之臟毒·痔瘡, 常帶膿血者是也. 何以知之, 觀仲景用赤豆當歸散而知之矣. 狐惑有膿者, 赤豆當歸散主之. 赤豆發芽是排其膿, 則知先血後便, 亦是臟毒有膿, 其用赤豆, 亦以排膿, 卽所以行血也.”(『金匱要略淺注補正』)이라하여 赤小豆의 排膿作用에서 膿血함을 추론하였다.

## 17. 心氣不足<sup>(1)</sup>에 吐血하고 衄血하면 瀉心湯主之라

[瀉心湯]方 亦治霍亂

大黃二兩 黃連 黃芩 各一兩

右三味를 以水三升으로 煮取一升하여 頓服之라

해석) 心氣不足한 상태에서, 吐血, 衄血하면, 瀉心湯을 쓴다.

## [校勘]

① 心氣不足: 『千金』卷十三第二에서 ‘不足’은 ‘不定’으로 작성되어 있다. 바른 것이다. 吳謙은 “不足二字, 當是有餘, 若是不足, 如何用此方(指瀉心湯)治之.”라 하였다. 吳謙이 말한 傳寫의 잘못은 단지 ‘不足’과 ‘有餘’의音が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억지로 해석한 것이다. 『千金』에서 ‘不定’이상의 兩條에 모두 ‘心實熱證’이 있다. ‘不定’ 역시 心에 熱邪所客, 耗傷榮氣하여 吐衄에 이른 것이니, 병행하여 心氣不定을 나타낸다. 이른바 ‘不定’은 脈數心跳하고, 心神不安한 것이다. 魏荔彤이 “其人脈必洪數, 其證必煩滿, 口乾燥而渴.”이라 하였으니 애석하게도 『千金』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였다.

## [字句解]

(1) 心氣不足: 從『千金』에 ‘心氣不定’으로 작성되어 있다, 則 心煩不安의 의미이다.

## [考察]

本條에서는 熱盛吐衄의 證治에 대해 논하고 있다. 心藏神, 主血脈하니, 邪熱內熾, 擾亂心神于內, 迫血妄行于上하면, 故로 心煩不安, 吐血·衄血의 證狀을 볼 수 있다. 病機는 心火亢盛, 迫血妄行한 것이며. 처방은 瀉心湯으로 清熱瀉火, 涼血止血한다.

程雲來가 “心氣不足而邪熱乘之, 則迫血妄行, 故有吐衄之患.” 또는 ‘邪熱乘之’라하여 六淫의 火나 他臟의 火와 유사하게 언급하였다. 『金鑿』에 이르기를: “心氣 不足二字, 當是有餘二字, 若是不足, 如何用此方治之, 必是傳寫之說. 心氣有餘, 熱盛也.”이라하여 본문의 不足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各家注述이 비록 서로 같지 않으나原文中の 吐血·衄血의 病機가 實火에 屬한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이 있다.

程林은 “心主血, 心氣不足而邪熱乘之, 則迫血妄行, 故有吐衄之患. 夫炎上作苦, 故內經曰: 苦先入心, 三黃之苦, 以瀉心之邪熱.”(『金匱要略直解』)이라하여 心氣不足한 상태에서 邪熱乘之의 상태로 이해하였다.

魏荔彤은 “火邪有餘, 壯火食氣, 心氣遂覺不足, 因而吐衄或兼見或專見, 應先治其火邪之盛以愈標病, 而本病之虛實, 方可徐審而圖之. 主之以瀉心湯, 純

用苦寒, 以泄實熱之邪, 火邪得消而氣自足, 少火又能生氣矣. 此乃治邪盛而正分陰陽俱未甚虛者, 方可服也.”(『金匱要略方論本義』)이라하여 火邪가 心氣損傷시켜 不足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尤怡는 “心氣不足者, 心中之陰氣不足也. 陰不足則陽獨盛, 血爲熱迫而妄行不止矣. 大黃芩連瀉其心之熱, 而血自寧.”(『金匱要略心典』)이라하여 心氣不足하면 陰氣不足하고, 따라서 陽盛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陳念祖는 “此爲吐衄之神方也. 妙在以芩·連之苦寒瀉心之邪熱, 卽所以補正之不足; 尤妙在大黃之通止其血, 而不使其稍停餘瘀, 致血愈後釀成咳嗽虛勞之根.”(『金匱要略淺注』)이라하여 일단 吐衄의 멈추는 것에 의의를 두지, 瘀血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唐宗海는 “一止血·其法獨取陽明; 陽明之氣下行爲順, 所以逆上者, 以其氣實故也. …… 故必極奪其實, 釜底抽薪, 然後能降氣止逆, 仲景瀉心湯主之. 血多者, 加童便·茅根; 喘滿者, 加杏仁·厚朴; 血虛者, 加生地·當歸; 氣隨血脫不歸根者, 加入參·當歸·五味·附子; 有寒熱者, 加柴胡·生薑, 或加乾薑·艾葉, 以反佐之. …… 方名瀉心, 實則瀉胃, 胃氣不泄, 則心火有所消導, 而胃中之熱氣亦不上塞, 斯氣而血不逆矣.”(『血證論·卷二』)이라하여 陽明之氣를 順하게 하기 위해 瀉心湯을 사용함을 밝혔다.

## IV. 結論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에 대하여 각 醫家의 注解와 綜合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驚悸는 脈象에 따라 驚證과 悸證으로 辨證하며, 그 脈診部位는 注家에 따라 寸口脈 전체 혹은 寸部位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차가 있었다.

2. 衄血은 脈象에 따른 吉凶과 계절의 따른 分類는 본 편의 독특한 면이고, 汗과 衄血의 관계로 禁忌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傷寒論등의 문건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3. 吐血의 誘因과 脈象에 따른 경과가 기술되었



으며, 특히吐血이 肺와의 연관성에 대한 注家들의 논의가 있었다.

4. 下血은 治方과 함께 近血, 遠血의 분별에 대한 大綱을 설명하였다.

5. 본편에서는 血證을 크게 亡血이라 하여 衄血과 汗의 관계를 넓혀 제반 血證과 汗의 관계와 脈象에 따른 辨證에 대해 논하였다.

6. 胸滿의 證狀에 대해 소상이 언급하였으며, 그 原因을 瘀血로 보았으며, 특히 전체적인 맥락에서 瘀血의 病證에 대한 參考點을 제시하였다.

7. 火邪를 역대 주가들이 대개 각종 熱性刺戟 治療의 誤用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傷寒論에 근거하여 火邪를 驚悸의 原因중 하나로 보아 驚悸의 治方으로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를 들었으며, 아울러 心下悸에 대한 직접적 언급으로 半夏麻黃丸을 언급하였다.

8. 血證의 治方으로는 吐血不止하면 柏葉湯을 적용하고, 吐·衄血이 心火亢盛, 迫血妄行에 속하면, 瀉心湯類를 적용한다. 下血에는 先便後血의 遠血에는, 黃土湯을 적용하였고, 先血後便의 近血에는 赤小豆當歸散을 적용하였다.

## 참 고 문 헌

1. 高學仁, 金匱要略脈證治療,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2. 郭靄春 王玉興 編著 金匱要略校註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郭秀梅: 日本醫家金匱要略注解輯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4. 南京中醫藥大學: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5.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丹波元,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7.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明清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朴憲在譯註 完譯: 金匱要略 書苑堂, 1978
9. 範式則: 金匱辨解(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

科學技術出版社, 1991

10. 孫思邈: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1. 徐彬: 金匱要略論注(中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1987
13.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二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4. 楊醫亞: 金匱中醫自修讀本, 北京,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5. 嚴鴻志: 金匱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蘇寶剛: 金匱要略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7. 葉子雨: 金匱要略闕疑(近代中醫珍本輯),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8.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9.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20. 王玉興: 金匱要略方論校注語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1. 李彭: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2.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3.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24. 李東建: 國譯 金匱要略, 書苑堂, 1996
25.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6.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7. 喻嘉言: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28. 張機(仲景), 仲景全書(影印本), 一中社, 1992
29.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8
30. 張志聰: 金匱要略(明清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1. 全國韓醫科大學 心悸內科學教室, 東醫心悸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5,
32. 曹家達: 金匱發微(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3. 朱光被: 金匱要略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4.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5.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2002.

36.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7年

37. 陳伯未: 金匱要略類病釋(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8.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39. 黃元御: 金匱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